

이대호 “2년뒤…친구 따라 해외 간다”

병역의무 마친 ‘대호의 겨울’

동기 日 김태균-美 추신수에 자국 부상 탓에 두 시즌 지나야 FA 획득
“롯데서 열심히 뛰 후 빅리그 도전”

동기 김태균이 서울 롯데호텔에서 지바 롯데 입단식을 열었던 11월 13일, 롯데 이대호(27)는 훈련소에 있었다. 1주일 뒤에는 이범호가 소프트뱅크로 갔다. 또 1주일 이 흐른 11월 27일 이대호는 4주간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사회로 복귀했다.

야구육성 많기로 소문난 이대호에게 감회가 남다를 수밖에. 아니나 다를까. “나도 2년 후에는…”이라는 진심을 내비쳤다. 부상 탓에 김태균보다 2년이 늦어졌으나 일단 “롯데 선수로서 FA 자격을 취득할 때까지 2010~2011시즌을 열심히 하고, 여건이 되면 도전하겠다”는 꿈을 밝혔다. 최고의 무대인 메이저리그를 먼저 언급했다. 김태균이 호조건(3년 최대 약 90억원)으로 일본에 진출했고 추신수(클리블랜드)가 빅리거로 뜬 현실이 ‘고교 시절 같이 놀았던’ 이대호에게도 자극으로 작용하는 것 같았다.

훈련소에서 이대호는 분대장을 맡았다. 퇴소할 때 상도 받았다. 국가대표팀에서도 박경완 같은 선배들은 “몰라서 그렇지 이대호만큼 괜찮은 애도 없다”고 씩씩함을 인정했는데 어디 가도 그 불인성은 통하는 모양이다.

훈련 동기들은 대부분에서 틈이 나면 사인을 청했다. 방상내피(속칭 깔깔이)에 사인을 해준 적도 있었다. 사단장이 시찰 왔을 때도 이대호를 알아봤다. “재미있었다”고 밝게 추억했다.

훈련소를 나오자마자 임수혁 동기 호프 로 갔다. 경남도 동문회도 있었다. 경남고 현역 후배와 선배들의 친선 야구경기에서



4주간의 군사훈련을 마친 뒤 임수혁 동기 호프, 사령의 연탄배달까지. 큰 덩치만큼이나 넓은 마음을 가진 이대호는 FA 자격을 얻은 2년 뒤, 해외진출을 하고 싶다는 뜻도 내비쳤다.

는 투수로 던지기까지 했다. 이달 2일에는 선수협 총회에 참석하느라 서울~부산을 왕복했다.

몇 년째 해오는 ‘사랑의 연탄배달’을 위해 자비 500만원을 들여 연탄을 사고, 5일 배달까지 한다. 6일에도 요양원을 방문해 성금을 전달한다. 할머니 슬하에서 자란

어린 시절을 잊지 못해서다.

하이라이트로 26일에는 결혼식이 예정돼 있다. 하와이로 신희영행을 간다. 박진웅 사장이 주례를 선다. 이 와중에 연봉협상도 기다린다.

28홈런-100타점을 달성한 이대호는 롯데 타자 전체 고과 1위로 알려져 있다. 틈

틈이 훈련도 해야 되는데 근 근처 헬스장에서 웨이트트레이닝 위주로 체력을 관리할 생각이다. “(아무리 행사가 많아도) 할 일은 해야죠”라는 말속에서 스타에 어울리는 책임감이 묻어난다.

김영준 기자 gatzby@donga.com

대니얼김의 MLB 수다

‘美 이민국 파워’에 빅리거도 벌벌

메이저리거는 어디를 가더라도 VIP대접을 받을 수 있다. 본인이 특별히 요구하지 않더라도 식당이나 나이트클럽을 가게 될 경우 주인의 자발적인 특별서비스가 기다리고 있다. 알아서 특별 대우를 해준다는데야 그걸 마다할 사람은 없다. 억울하라면 성공하라는 말처럼 그들이 누리는 그런 특혜를 심심찮게 지켜봐야 하는 입장에서 배가 아프지 않은 것도 아니다. 하긴 음주운전같은 큰 실수가 아닌 이상 경찰도 눈을 감아줄 정도이니…

하지만 예외는 있다. 해외여행이나 출장을 많이 다녀본 눈치빠른 사람이라면 단박에 짐작하고 공감하는 부분일 것이다. 세계 어느 나라를 방문하든 변하지 않는 공통점이 있다. 그건 바로 항상 무뚝뚝한 표정을 유지하는 출입국관 리스 직원들이다. 도장 하나 찍는 게 뭐가 그리 심각한지 도무지 웃는 낯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고 항상 시무룩하거나 짜증스러운 표정이다. 그리고 그건 메이저리거에게도 절대 예외는 없다.

2003년 뉴욕 JFK공항에서 사건이 터졌다. 주연은 당시 뉴욕 메츠의 최고 유망주인 호세 레이에스였고 조연은 바로 나였다. 몬트리올 원정을 마치고 전용기가 공항에 도착한 것은 새벽3시쯤. 보통 때와 마찬가지로 국제선이었지만 국내선처럼 그냥 무사통과할 줄 알았다. 왜냐? 뉴욕 메츠선수단이 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 예상과는 달리 선수 한명씩 입국심사대

를 거쳐야 했다. 내 차례가 돌아와 여권과 영주권을 직원에게 넘겨줬다. 그런데 컴퓨터 모니터를 한참 들여다보면 직원은 도장을 찍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조그만 사무실로 나를 데려갔다.

순간 당황할 수밖에. 잘못은 없지만 그래도 그 사무실은 미국에서 추방되는 사람들이 대기하는 곳이라 바짝 긴장했고 온갖 생각이 다 들었다. 그런데 마침 레이에스도 나처럼 그 사무실로 호출을 당해 들어왔다. 동병상련이라고 내 입장에서든 든든한 후원군을 얻은 셈이다. 레이에스도 나처럼 긴장하기는 매 한가지여서 얼굴이 싸늘하게 굳어있었다. 당시에 레이에스가 없었으면 나만 ‘결렸다면’ 팀관계자들은 아마 나를 놔두고 그냥 떠났을 것이다. 하지만 당시 최고 유망주가 입국을 제지당하자 단장 부사장 할 것 없이 난리가 났다.

지금까지도 우리가 왜 불려갔는지 정확한 이유는 모른다. 하지만 메츠구단의 고위급 간부들이 사태 해결에 나서면서 그나마 입국심사를 통과할 수 있었다. 9.11사태 이후 미국의 입국심사가 까다롭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설마 최고 유망주가 테러리스트는 아닐텐데… 어쨌거나 외국 국적의 메이저리거는 말할 것도 없고 미국국적 메이저리거에게도 이민국은 영 까다로운 기관으로 인식되고 있다. 미국에서 가장 파워있는 기관을 뚫으려면 이민국을 떠돌이는 사람들이 많은 것도 그런 이유일 것이다.



대니얼 김 Special Contributor
08 베이스 원년 어린이 회원으로 어릴 적부터 야구에 미쳤다.
85년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건너간 뒤 뉴욕 메츠직원을 거쳐
김병현과 서재응의 미디어 에이전트코디네이터로 그들과 정교를 함께 했다.
(twitter.com/danielkim98)



4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2009여자야구인의 밤’ 행사에 참석한 한국여자야구연맹 임원진들. 사진 왼쪽 뒷줄부터 시계방향으로 서순호 선임이사, 최주익 경기이사, 한명선 심판이사, 박노준 기획이사, 강석훈 총무이사, 주성호 기술이사, 이상진 부회장, 정원동 부회장, 최수정 나인빅스 감독, 정진구 부회장, 전여옥 회장, 김영숙 초대회장, 이광현 부회장, 유수호 홍보이사.
양희정 기자 yohan@donga.com

천하무적女야구 “열정은 男부럽지 않죠”

현장 리포트

한국여자야구 후원의 밤 행사
23개팀 400여명 선수 한자리

메이크업 아티스트, 할인점 보안요원, 도핑테스트 연구원… 여자야구선수들의 직업이다. 4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 12층에서 열린 ‘한국여자야구 후원의 밤’ 행사에는 각자 다른 직업을 가졌지만 ‘야구’라는 이름으로 한데 뭉친 여자선수들이 모두 모였다.

많이 알려져 있던 않지만 한국에는 총 23개의 팀, 400여 명의 여자야구선수들이 있다. 1년에 3번 그들의 리그를 연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스포트라이트도, 환호성도 없다. 서울 블랙펠스 유격수 김수미(25)는 “우리들만의 리그지만 열정과 패기가 넘친다. 그것만으로 우리는 만족한다”고 말했다.

이들에게는 명확한 포지션도 없다. 인원이 적어 한 선수가 투수로 마운드에 오르면 내야수 자리를 채워야하고, 포수로 자리를 이동하면 외야를 맡아야한다. 마땅히 훈련할

만한 장소도 없다. 2008년 제3회 세계여자야구월드컵에 출전했던 국가대표 이유영(29·서울 블랙펠스)은 “주말마다 초등학교 운동장을 찾는 게 일이다. 결국 못 구하면 한강 고수부지에 나가서 캐치볼을 하며 아쉬움을 달랜다”고 말했다. 게다가 이들은 대부분 직업이 있어 경기 때마다 연치를 내는 것도 여간 눈치 보이는 일이 아니다. 그래도 이들은 “내년에는 우승하고 싶다”며 입을 모았다. 알아주지 않아도 열정 만큼은 남자야구선수들 못지 않은 목소리로 말한다.

원래 필드하키를 하다가 야구선수로 전향한 김수미는 “(구단)언니들이 사준 스카이가 한 컬레를 집에 고이 모셔두고 있다”고 귀띔했다. 그 스카이크에는 자금사정이 넉넉하지 않아 야구를 포기하려던 김수미를 조용히 도와주려는 동료들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각자 사연을 가지고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여자야구.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들만의 리그는 현재진행형이다.

홍재현 기자 hong927@donga.com

■ 런다운

GG 3루수 후보 이원석 “나 좀 빼주면 안되겠니?”

“제 이름을 좀 빼주시면 안 될까요?”

팀 선배 김동주와 함께 골든글러브 3루수 부문 후보에 오른 두산 이원석(24·사진)은 축하인사에 대뜸 자신의 이름을 빼달라는 농담을 건넸다.



후보 자격은 88경기 이상 출장에 타율 0.290 이상, 규정타석을 채운 선수. 올 시즌 타율 0.298에 내야를 모두 커버하며 맹활약한 멀티플레이어 이원석도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

그럼에도 그는 “KIA 김상현 선배도, 김동주 선배도 모두 강력한 수상후보 아닌가. 나는 그분들과 나란히 후보가 된 것만으로 만족한다”며 겸손해했다. 오히려 “일단 지금 내 목표는 골든글러브보다는 광저우아시아게임에 출전하는 것”이라며 이를 양다물었다.

이원석은 체중을 6kg이나 줄이며 몸만 들기에 열중하고 있다. 일본 미야자키 교 육리구부터 마무리캠프까지 쉬지 않고 모든 훈련을 소화했고 비활동기간인 12월에도 개인훈련에 한창이다. 트레이너와 함께 3시간 동안 러닝, 웨이트트레이닝, 보강훈련을 하고 있는 이원석은 “올 시즌 후반기에 체력이 급격히 떨어졌다. 일단 체력을 키우는 게 1차 목표다. 또 그동안 잘 맞은 타구가 이번이 펜스에 걸렸는데 내년에는 힘을 좀 더 길러 그런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재현 기자 hong927@donga.com

편집 | 강문규 기자 mikkang@donga.com

이용규 “내년엔 실력으로 악플 삭제”

올시즌 초 부상…کم백 후엔 부진
“팬들의 질책과 악플…다 내 잘못”
15일부터 포항캠프서 훈련 돌입

KIA 이용규(24·사진)가 내년 시즌 ‘악플’ 없는 한 해를 다짐했다. 올 시즌 불의의 부상으로 제 기량을 발휘하지 못한 만큼 겨우내 충실한 훈련으로 내년 팀에 더 많은 보탬이 되고 싶다는 바람이다.

이용규는 지난해 베이징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데 이어 올해 초 제2회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서도 준우승에 앞장서 올 시즌 안팎으로 기대가 컸다. 그러나 4월 7일 광주 홈 개막전에서 펜스플레이를 펼치다 오른쪽 복사뼈에 금이 가는 부상을 입고 수술을 받았다.

결국 전반기를 날렸고 최종 50경기에서 169타수 45안타, 타율 0.266으로 시즌을

마쳤다.

이용규는 “올해 우승이라는 감각을 맛봤지만 홈 개막전에서 부상을 입는 바람에 시즌 중반까지 경기를 뛰지 못했다. 복귀한 후에도 마지막 1위 다툼이 한창일 때 컨디션이 좋지 않아 부진했다”며 “가장 중요한 때 역할을 하지 못해 팬들의 질책과 함께 악플도 많았다. 다 내 잘못이다. 겨우내 잘 준비해 내년 시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3일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마치고 서울 집에 머물고 있는 이용규는 조만간 수술을 받은 부위의 정밀검진을 받은 뒤 개인훈련을 시작한다.

특히 15일부터 황병일 수석코치, 최희선, 김상현, 나지완, 안치홍 등과 함께 포항에 ‘미니 캠프’를 차리고 본격적인 체력훈련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경호 기자 rush@donga.com



마님은 하나…두산 안방 ‘5:1 서바이벌 매치’

최승환 등 5명 주전자리 불꽃경쟁

두산은 포수왕국이다. 올 시즌 안방을 차지했던 최승환-용덕환에, 주전으로 손색이 없는 김진수가 있다.

내년에는 포수로 전향한 이성열과 얼마 전 제대한 양의지까지 합류해 주전경쟁이 더욱 치열해졌다.

최승환은 “이번 전지훈련에서 주전달기가 만만치 않을 듯하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주전포수가 부상으로 빠져버리면 공백을 메워줄 백업포수가 전무하다시피 한 타 구단은 부러운 일이 아닐 수 없

을 터. 그럼에도 김태형 배터리코치는 “확실한 주전 한 명이 필요하다”고 잘라 말했다. 김 코치는 “우리 팀 포수들이 많지만 실력이 비슷해 우열을 가리기 힘들다”며 “SK 박경완이나 삼성 진갑용처럼 주전포수 한 명이 있으면 안방이 좀 더 안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올해 두산의 안방은 최승환이 꿰차지만 시즌 중에 무릎 부상을 당하면서 용덕환과 마스크를 번갈아 썼다. 덕분에 특정 선수에게 부담이 가중되는 일은 없었지만 두 포수의 스타일이 정반대이기 때문에 투수들과의 호흡 문제가 있어 쉽지 않았다. 김 코치

는 “포수가 자꾸 바뀌다보면 안방의 무게감도 다소 떨어질 수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이번 전지훈련에서는 주전 한 명을 선발하는 게 목표”라고 했다.

용덕환은 젊은 투수와의 호흡이나 볼로킹이 좋다. 최승환 양의지 김진수 등은 수비뿐 아니라 타격에 강점이 있다. 김 코치는 “공정적인 부분은 포수들의 발전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점이다. 투수들과의 호흡이나 타격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 선수가 안방을 꿰찰 것”이라고 말했다.

홍재현 기자 hong927@donga.com